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동반 폭락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역시 폭락할 수밖에 없어 계약거래는 물론 현물거래 수요가 줄어들므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나프타 역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고 구매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이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폭락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일가스·오일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이 국제 석유시장 패권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사우디가 동맹을 맺고 러시아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락했다고는 하나 겨울철이면 LPG 가격을 대폭 인상하던 사우디가 2014/2015년 겨울 들어 오히려 LPG 가격을 인하한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이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투기자금이 국제 원유시장에 유입되게 만들었고 국제유가가 40-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에 풀었던 달러화를 회수하기 시작하면 국제유가가 50달러는 물론이고 30달러 수준으로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50달러 붕괴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가수요를 기대하고 재고를 쌓아놓는다면가 아니면 정기보수를 핑계로 집단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어리석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석유화학의 수익성은 어떠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틸렌과 나프타의 스프레드가 430달러 이상이고, 프로필렌도 연초에 100달러 가까이 폭등했으며, LDPE와 에틸렌의 스프레드는 290달러, PP와 프로필렌의 스프레드 역시 400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GPPS와 벤젠의 스프레드도 400달러를 넘고 있다.

물론, 가동률 조정이나 원료의 재고손실을 고려하면 단순 스프레드를 가지고 수익성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죽을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폭락을 받아들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유화학, 수익성 양호하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